
초음파를 이용한 전립선 조직 검사에 있어 비뇨기과 및 방사선과에서 시행한 검사의 결과 분석

서울아산병원 방사선팀

정한철, 이선아, 이영환, 윤향이, 이용문, 김정근

목 적 : 2001년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생긴 암 중 2.8%로 전체 6위를 차지하였으며 발생등록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. 전립선암은 대부분 초음파유도 조직검사로 진단되는데, 전립선암 조직을 적절하게 얻는 것이 조기 진단에 중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유도 단순 무작위 조직검사와 회색조영상과 색 및 파워 도플러영상 소견을 중심으로 한 조직검사에서의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초음파유도 무작위 조직검사(8곳)를 시행한 75명과 6월부터 8월까지 회색조 영상, 색 및 파워 도플러 영상에서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75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. 회색조 영상에서의 저에코, 색 및 파워 도플러 영상에서의 혈관의 밀도가 증가된 부위를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 정하였다. 또한 두 군에서 증가전립선특이항원 (PSA : prostate specific antigen)이 4 ng/ml이하인 경우, 4~10 ng/ml인 경우(회색지역), 그리고 10 ng/ml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서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.

결 과 : 초음파 유도 무작위 조직 검사를 시행한 군에서 전립선암은 24(32%)명에서 진단되었고 그 중 전립선 특이 항원이 4 ng/ml 미만인 7명 중 0명(0%), 4~10 ng/ml인 41명 중 9명(21.9%), 10 ng/ml 이상인 27명 중 15명(55.6%)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.

초음파영상을 중심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군에서는 30명(40%)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그 중 전립선 특이 항원이 4 ng/ml 미만인 6명 중 1명(16.7%), 4~10 ng/ml인 경우 46명 중 12명(26.1%), 10 ng/ml 이상인 23명 중 17명(73.9%)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.

결 론 : 초음파 소견을 중심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군에서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무작위 조직검사를 시행한 군보다 높았다. 따라서 초음파 소견을 중심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전립선암의 진단에 더 적합하리라 사료된다.